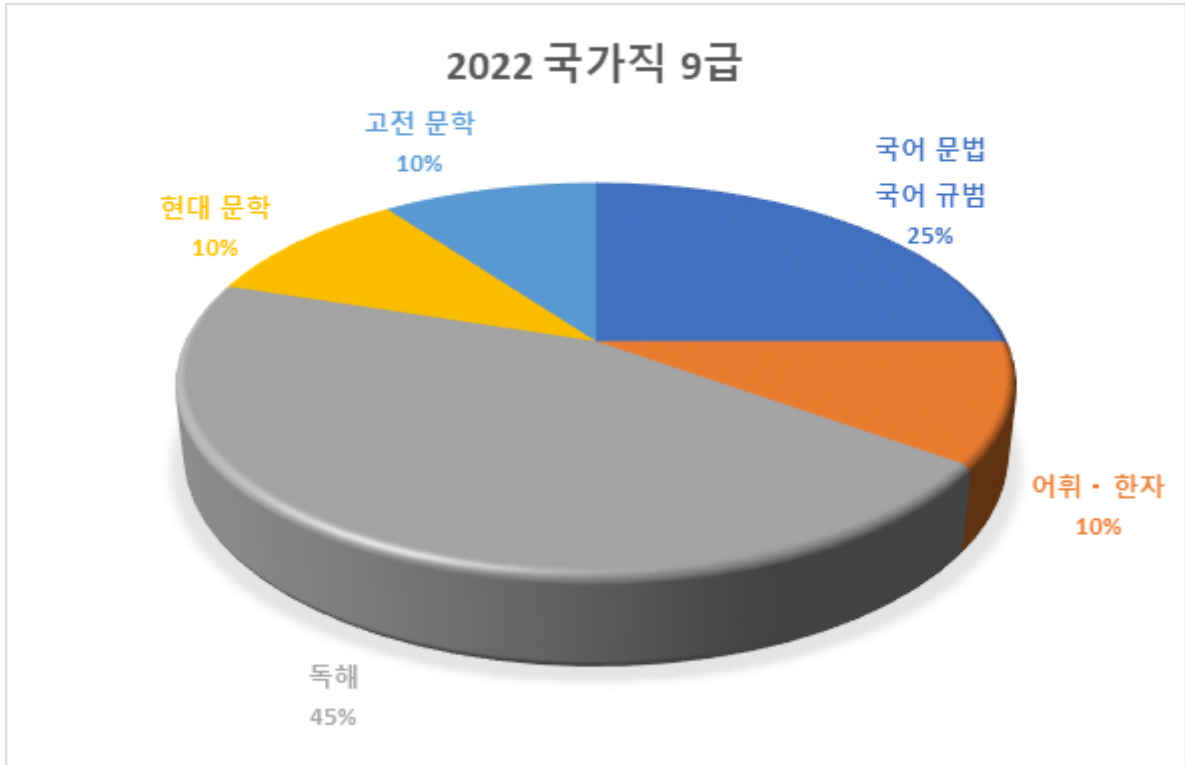


2022 국가직 9급: 2022. 4. 2. 시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해설 강의는 4월 2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커넥츠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형 문항 (7)	국어 문법·국어 규범 (5)	담화 (1): 지시 표현 한글 맞춤법 (3): 한글 맞춤법 제57항 2문항 / 사이시옷 1문항 올바른 문장 쓰기(1): 문장의 호응
	어휘·한자 (2)	올바른 한자 표기 (1) 한자 성어 (1)
지문 분석형 문항 (13)	독해 (9)	내용 일치 (4) 내용 추론 (2): 사례 적용, 내용 전개 추론 문장이나 단락 배열하기 (2) 화법(1)
	현대 문학 (2)	현대 시 (1) 현대 소설 (1)
	고전 문학 (2)	시조 (1) 고전 소설 (1)

★ 선재국어 적중 내용은 동영상 해설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평

이번 2022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의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시험과 매우 유사한 문제 유형과 출제 비율이다. 문제 유형이 작년과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문항 비율 역시 작년과 동일했다. 즉 문법 5문, 어휘·한자 2문, 독해 9문, 문학 4문의 출제 비율이 4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다.

둘째, 상위권과 중위권의 실력이 확연히 변별되지 않은 시험이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을 갈랐던 문법과 한자가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어,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짧은 기간 안에 좋은 결과를 보았을 것이다. 반대로 상위권 학생들은 난도 있는 문법이나 고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실력 차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전체 평균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한두 문제로 최고 득점이 갈리는(즉 한자) 현상을 보일 것이다.

셋째, 독해 문제가 단문 위주로 출제되어, 지방직 등의 시험과 차별점이 보였다. 지방직에서 출제되는 문단 5개 이상의 다소 긴 지문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문제 유형도 매우 익숙했기에(내용 일치 및 추론 등), 학생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 풀었을 것이다. 즉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5위 문제에 독해가 들어가는 것은 문법이 쉬워졌기 때문이지, 독해 자체의 난도가 올라가서도, 신유형이나 킬러 문항이 출제되어서도 아니다.

넷째, 문법뿐만이 아니라 문학 역시 기출 내용에서 다수 출제되었다. 즉 현대 시, 고전 시가, 고전 소설의 문제가 모두 기출 지문에서 출제되어 기출 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을 보고, 학생들은 독해 훈련과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을 것이다. 특히 독해는 중급 난도의 지문을 평상시에 꾸준히 분석하는 훈련으로 대비해야 한다. 늘 강조했듯이 ‘독해야 산다-점수를 바꾸는 15분’에 꾸준히 참여했던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독해 훈련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시험은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였다. 새로운 이론과 문제 유형이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득점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출 분석이다. 앞으로의 시험도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합격을 향한 기본 훈련은 기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성실한 훈련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매주 독해 훈련을 바탕으로 고득점을 위한 지식 습득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 남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항상 독해를 기본 바탕으로 두되, 나머지 영역을 고루 학습하여 평균점이 높아진 시험에서 최고 득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기를 바란다.

오늘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우리의 성실성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비록 시험의 과정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기를 바란다.

*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가까운 능력을 씩히고 있다.
 - ② 음식물 쓰레기를 씩혀서 거름으로 만들었다.
 - ③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씩혀 본 적이 없다.
 - ④ 그들은 새로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서 씩히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부모님 속을 씩혀(×) → 씩여(○):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의 뜻으로는 ‘씩이다’가 바른 표기이다. 나머지 ①·②·④는 모두 ‘씩히다’가 바르게 쓰였다.

오답 풀이: ① 능력을 씩히고(○): 물건이나 사람 또는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하다.

② 음식물 쓰레기를 씩혀서(○): 유기물이 부패 세균에 의하여 분해됨으로써 원래의 성질을 잃어 나쁜 냄새가 나고 형태가 망개지는 상태가 되게 하다.

④ 기계를 씩히고(○): 물건이나 사람 또는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하다.

2. (가)~(라)를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 (나)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가 잘됐으면 좋겠어.
-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 ①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달라.
- ② (나):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③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 ④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정답: ②

해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의 뜻으로는 ‘바람’이 바른 표기이므로 ‘바람입니다’를 ‘바램입니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램(×)’은 ‘바람’의 잘못된 표기이다. 또한 우리말은 되도록 능동 표현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으로 고쳐 쓸 수 있다. 다만, ‘좋은 결실을 맺다’에서 ‘좋은 결실’과 ‘결실을 맺다’를 각각 의미의 중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결실(結實): 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물. 또는 그런 열매 /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 또는 그런 성과

오답 풀이: ①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의미로는 ‘다르다’를 쓴다. ‘다르다’는 차이, ‘틀리다’는 오류를 나타낸다.

③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 좋겠어’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이므로 ‘좋겠어’를 ‘좋겠다는 거야’로 고쳐 쓴 것은 적절하다.

④ 서술어 ‘주다’는 ‘...에/에게 ...을 주다’의 형태로 쓰이므로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와 같이 부사어를 넣어 고쳐 쓴 것은 적절하다.

적중! 2022 나침반 기출 변형 모의고사 - 1회 14번 / 2022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4회 11번 등

3.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구곡간장(九曲肝腸)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 ② 학문의 정도를 견지 않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이가 있다.
- ③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口蜜腹劍)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④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답: ④

해설: ‘螳螂拒轍[사마귀 당, 사마귀 랑(낭), 막을 거, 바꿨자국 철]’은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신중한 태도로’라는 앞부분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九曲肝腸(아홉 굽, 굽을 꼬, 간 갠, 창자 장):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曲學阿世(굽을 꼬, 배울 학, 언덕 안, 세대 세):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③ 口蜜腹劍(입 구, 꿀 밀, 배 복, 칼 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적중! 2022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3회 10번 등

4.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수: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지민: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정수: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지민: 맞아. 그중에서도 두괄식으로 답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정수: 어!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지민: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정수: 그렇긴 해.

- ①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며 상대방의 이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대화의 격률 중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지민이 면접 전략 강의 중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라고 말하자 정수는 첫 번째 내용보다 두 번째 내용이 더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지민은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 설득력이 있었어”라며 두 번째 내용이 더 인상적이라는 정수의 견해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라며 첫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③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이러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은 공손성의 원리 중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라는 ‘동이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지민은 면접 전략 강의를 듣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정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지민이 정수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정수의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은 없다.

④ 지민은 정수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에서 정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민이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적중 2022 나침반 기출 변형 모의고사 - 2회 10번 / 2022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10회 8번 등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완전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익이 아니었으니,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입상하고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이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신 것이로다.’

- 김만중, <구운몽>

- ① ‘양소유’는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 ② ‘양소유’는 인간 세상에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 ③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 ④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

정답: ②

해설: 김만중의 <구운몽(九雲夢)>은 ‘현실 → 꿈 → 현실’로 내용이 전개되는 환몽 구조의 소설로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전하는 고전 소설이다.

1문단의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 2문단의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등에 따르면 꿈속의 양소유가 스스로 현실의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성진은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야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의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 3문단의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꿈속에서 성진은 인간 세상의 양소유로 태어나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것이다.

- ③ 2문단의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에서 알 수 있다. 성진이 있는 연화도량은 인간 세상이 아닌 것이다. 이 글은 성진이 있는 현실의 공간이 천상계(연화도량)이고 성진이 꾸는 꿈속의 공간이 지상계(인간 세상)인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④ 2문단의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염주가 걸려 있고 ~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에서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자신이 연화도량의 행자임을 깨닫고 있다. 이후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에서 성진은 자신이 인간 세상의 양소유가 된 꿈을 꾸고 현실로 돌아왔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가)~(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차단 말가
㉠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믓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 무슴 흐리오.

(나) 철령 노퍽 봉에 쉬여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 사마 띄여다가
㉠ 님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본들 엇드리.

(다)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훈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 전도 날 싱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라) 삼동(三冬)의 뵈웃 님고 암혈(巖穴)의 눈비 마자
구름 썬 벗누도 썬 적이 없건마는
서산의 ㉢ 히 디다 하니 그를 설워 호노라.

- ① ㉠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 ② ㉡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 ③ ㉢은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 ④ ㉣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을 가리킨다.

정답: ④

해설: (가) 유응부의 <간밤의 부던 브람에~>는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풍자한 시조이다. (나) 이항복의 <철령 노퍽 봉에~>는 작가가 광해군의 인목 대비 폐위를 반대하다가 유배를 당해 귀양을 가면서 지은 시조이다. (다) 계량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는 봄날의 감성적 배경을 통해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시조이다. (라) 조식의 <삼동에 뵈웃 님고~>는 산중에 은거하는 몸으로 임금의 승하를 애도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조이다.

“서산의 ㉢ 히 디다 하니 그를 설워 호노라”에서 화자는 서산에 해가 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 여기서 ‘히 지다’는 임금의 승하를 비유하므로 ㉢ ‘히’는 벗이 아니라 임금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브람’, ‘눈서리’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의 폭력을, 다 기울어 가는 ㉠ ‘낙락장송’은 수양대군에 의해 억울하게 해를 입은 단종의 충신들을 가리킨다.

② 화자는 구름에게 고신원루를 비 삼아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때 ㉡ ‘님’은 구중심처 즉 궁궐에 계신 임금을 뜻한다.

- * 고신원루(孤臣冤淚): 임금의 신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
- * 구중심처(九重深處):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깊숙한 곳 /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 =구중궁궐(九重宮闕)

③ 화자는 배꽃이 떨어지는 봄에 이별한 임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도 여전히 그리워하면서 ‘㉡ 전도 날 싱각는가’라며 임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따라서 ㉡ ‘저’는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적중! 2022 나침판 기출 변형 모의고사 - 1회 2번 등

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했다.
-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으로 나뉜다.
-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① 가름 | 부문 | 구별 | ② 가름 | 부분 | 구분 |
| ③ 같음 | 부문 | 구별 | ④ 같음 | 부분 | 구분 |

정답: ①

해설: ㉠ 가름(○):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일’의 의미로는 ‘가름’이 바른 표기이다.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와 ○○시로부터 받은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 공감 지도는 공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에 소재한 복지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생필품 지원이나 방문 상담 등 복지 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 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그동안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복지 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 ③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 ④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문단에 따르면, 복지 공감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복지 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 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빅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 수행’에서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이 빅 데이터를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에서, 이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사각지대(死角地帶):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③ 마지막 문단에서 적절한 이해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에서 복지 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10.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첫째, “아침 먹고 또 공부하자.”에서 ‘아침’은 본래의 의미인 ‘하루 중의 이른 시간’을 가리키지 않고 ‘아침에 먹는 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되어서 ‘아침’만으로도 ‘아침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 ‘바가지’는 원래 박의 껍데기를 반으로 갈라 쪼든 물건을 가리켰는데, 오늘날에는 흔히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다. 셋째, ‘묘수’는 본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 꺼려서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 ① ㉠: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
- ② ㉡: ‘수세미’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 ③ ㉢: ‘배꼽’은 일반적으로 ‘땀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

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④ ㉞: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불렀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㉞은 '묘수'와 같이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이다. 그러나 ③에서 '배꼽'이 일반적으로 땀줄이 떨어지면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로 이는 특정 분야에서 의미가 특수하게 변화된 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㉞의 사례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배꼽점: 바둑판 한가운데의 점. 또는 그 자리에 놓은 바둑돌.

오답 풀이: ① ㉠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되어서 '아침'이 '아침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처럼, '코'가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즉 '콧물'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이는 한 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으로, 의미 변화의 원인 중 형태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언어적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

② ㉡ '바가지'는 원래 박을 갈라 썬던 물건이지만 오늘날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리키는 것처럼 '수세미'는 예전에는 식물인 수세미를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이는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뀐 것으로, 지시물이 변화하여 언어 형태와 지시물의 관계가 달라진 '역사적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

④ ㉞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부른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부른 것 역시 ㉞의 사례로 적절하다. 이는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의미나 용법이 변화를 가지게 된 것으로 '심리적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빛 공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① 시장에게 빛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②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③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④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건의문에 대한 이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이 글은, 글쓴이 □□□가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야간 운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의 수확률이 낮아졌으므로, 골프장의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시장에게 부탁하는 건의문이다. 그런데 글쓴이가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 부분은 없다. 글쓴이는 지나친 야간 조

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품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 입증된 바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 확인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즉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실제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들어 빛 공해로 자신의 농장이 겪은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시 시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③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하고,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을 언급하며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2. 다음 대화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진: 태민아, ㉠ 이 책 읽어 봤니?
 태민: 아니, ㉡ 그 책은 아직 읽어 보지 못했어.
 이진: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 볼 만해.
 태민: 응, 꼭 읽어 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이진: 그럼 ㉢ 저 책은 어때?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이야.
 태민: 그래, ㉣ 그 책도 함께 읽어 볼게.
 이진: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 읽어 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 이 책 두 권 사 줄게.
 태민: 고마워. 잘 읽을게.

- ① ㉠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②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③ ㉢과 ㉤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④ ㉤은 ㉢과 ㉣ 모두를 가리킨다.

정답: ②

해설: ㉢의 ‘저 책’에서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이다. 따라서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고 말하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의 ‘이 책’에서 ‘이’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로, 화자인 ‘이진’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한편 ㉡의 ‘그 책’에서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로 화자인 ‘태민’보다 청자인 ‘이진’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③ 이진이 ㉢ ‘저 책’은 어떠냐고 묻자, 태민이 ㉣ ‘그 책’도 읽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과 ㉤은 모두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 ④ 이진은 앞에서 말한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가면서 ‘이 책’을 모두 사 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은 ㉢과 ㉣을 모두 가리킨다.

적중: 2022 나침반 기출 변형 모의고사 - 10회 13번 / 2022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2회 19번 등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 혁명으로 봉건 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 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 보호가 시작되었다.

1922년 쟁 여사는 아동 권리 사상을 담아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1924년 국제 연맹에서는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국제 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 권리 헌장> 9개 항을 만들었다.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등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화 사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 ② <아동 권리 헌장>은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 ③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 권리 협약>, <아동 권리 헌장>에는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 ④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2~3문단에 따르면,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서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으므로 ④가 잘못된 이해이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에서부터이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근대 사회에 이르러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즉 근대 이후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② 3~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다. 1989년 <아동 권리 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에 <아동 권리 헌장>을 만들었다.

③ 2~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다.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아동 권리 협약>과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아동 권리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라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14.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 신동엽, <봄은>

- ①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 ②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봄'과 '겨울'의 이원적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신동엽의 <봄은>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이라는 화자의 소망을 의지적 어조로 노래한 시이다.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한 것은 아니므로 ①이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이 시에서 '제주에서 두 만', '삼천리 마을', '강산' 등은 우리나라의 국토를 대유법을 사용해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1연에서 '봄'은 통일을, '남해'와 '북녘'은 외세를 의미하는데, '오지 않는다'라는 단정적 어조를 사용해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체라는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또 2연과 3연에서는 '움튼다', '움트리라' 등의 단정적 어조를 사용해 자주 통일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봄'은 통일을, '겨울'은 분단 상황을, '남해', '북녘', '바다와 대륙 밖'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세력을, '눈보라'는 분단의 고통을, '미움의 쇠붙이'는 군사적인 대립과 긴장을 상징한다. 이 시는 이러한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는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④ '봄'은 통일로 긍정적인 의미를, '겨울'은 분단의 현실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시에서는 '봄'과 '겨울'의 대립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분단의 아픈 현실을 극복하고 외세가 아닌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리하면 그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둔해지면 그 작동도 막혀 버릴 것이니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회를 고취하여 발달케 하리오.

(나)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다)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추 수 있으리오.

(라)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필경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사회가 어찌 유지될 수 있으리오. 반드시 패망을 면하지 못할지라.

(마)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발문>

- ① (마) - (가) - (다) - (나) - (라)
- ② (마) - (가) - (라) - (다) - (나)
- ③ (마) - (다) - (가) - (라) - (나)
- ④ (마) - (다) - (나) - (가) - (라)

정답: ④

해설: ‘말과 글’을 ‘기관’에 빗대어, 이것을 잘 다스려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달된다고 주장한 글이다.

(마) 사회는 여러 사람이 뜻을 서로 통하고 힘을 이어서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이다. → (다) 말과 글이 없으면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없고, 그러면 인민들은 서로 이어지지 못해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원인)
 → (나) 이렇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결과)
 → (가) 이 기관을 잘 수리하지 않으면 그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사회가 발달할 수 없다. → (라) 그뿐 아니라 (이 기관을 잘 수리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녹슬어 결국 쓸 수 없게 되어 그 사회가 유지되지 않아 패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6.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 협상에서 만족(滿足)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② 김 위원의 주장을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하여 재청(再請)했다.
- ③ 우리 지자체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解結)할 방안이 생각났다.
- ④ 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재론(再論)이 필요하다.

정답: ③

해설: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함’ 등을 뜻하는 ‘해결’은 ‘解決(풀 해, 결정할 결)’로 쓴다.

* 結: 맺을 결

오답 풀이: ① 滿足(찰 만, 발 족): 마음에 흡족함. / 모자람이 없이 넉넉함.

- ② 再請(다시 재, 청할 청): 이미 한 번 한 것을 다시 청함. / 회의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동의(動議)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청함을 이르는 말 / 출연자의 훌륭한 솜씨를 찬양하여 박수 따위로 재연을 청하는 일
- ④ 再論(다시 재, 논의할 론(논)): 이미 논의한 것을 다시 논의함.

적중! 2022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6회 18번 등

17.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에서 고르면?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였다. (㉠) 그 이후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다. (㉡) 이러한 상황은 대략 1770년대에서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형 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 시학을 거부했다. (㉣) 고전 문학은 더 이상 문학의 규범이 아니었으며, 문학을 현실의 모방으로 인식하는 태도도 포기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해설: 생략된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의 앞에는 신분에 따라 문체를 달리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 즉 구체적인 내용(상술)과 이를 일반화한 진술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 흥 시민계급이 귀족과 하층민(신분)에 따라 문학의 장르와 내용을 다르게 배정했던 전통 시학을 거부했다는 구체적 내용 다음에 이를 일반화한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여 터부룩한 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식지식*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식지식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현은 박의 그런 지식지식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을 놓고, 그들은 우선 대합실로 들어왔다. 할 말은 많은 듯하면서도 지껄여 보고 싶은 말은 골라낼 수가 없었다. 이내 다시 일어나 현은,

“나 좀 혼자 걸어 보구 싶네.”

하였다.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 가지고 대동강가에 있는 동일관이란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고 현만이 모란봉으로 온 것이다.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기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그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귀*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요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사에게 물어보니, 경찰서라고 했다.

- 이태준, <패강랭>

* 지식지식: 남이 싫어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짓궂게 자꾸 요구하는 모양
* 뿌다귀: ‘뿌다구니’의 준말로, 쑥 내밀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 ①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②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 자신을 연민하고 있다.
- ③ ‘현’은 새 빌딩들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 ④ ‘현’은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이태준의 <패강랭(滄江冷)>은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고뇌와 태도를 다룬 소설이다.

“정거장에 나온 박은 ~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에서 ‘현’은 예전과 다른 ‘박’의 행색과 표정을 보게 된다. 그러나 ‘현’이 이러한 ‘박’의 변화가 자신의 작품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는 근거는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식지식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에서 시대와 불화하는 ‘박’의 모습과도 같은 자신과 자신의 작품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② “현은 박의 그런 지식지식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에서 알 수 있다. 즉 ‘현’은 학교와 사회에 지식지식하게 붙어 있는(구차하게 살아가는) ‘박’을 보며 자신과 자신의 작품 또한 ‘박’의 처지처럼 시대의 흐름에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며 이를 연민(불쌍히 여김)하고 있다.

③ “오면서 ~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에서 ‘현’은 전에 본 적 없는 새 빌딩들이 늘어선 것을 보고 시가(도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④ ‘현’은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찰서를 분묘(무덤)와 같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현’이 경찰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시대적 암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 적용! 2022 매일 국어 시즌 4 - 4회 02-2번 등

19.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① (가)에 따라 ‘아래 + 집’은 ‘아랫집’으로 적는다.
- ② (가)에 따라 ‘쇠 + 조각’은 ‘쇠조각’으로 적는다.
- ③ (나)에 따라 ‘전세 + 방’은 ‘전세방’으로 적는다.
- ④ (나)에 따라 ‘자리 + 세’는 ‘자릿세’로 적는다.

정답: ③

해설: 전세방(×) → 전세방(傳貰房)(○):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일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전세방’으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② ‘아랫집(아래 + 집)’, ‘쇠조각(쇠 + 조각)’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에 해당한다.

④ ‘자릿세(자리 + 세)(자릿貰)’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에 해당한다.

적중! 2022 나침반 기출 변형 모의고사 - 10회 16번 / 2022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10회 19번 등

20.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는 ‘밈(meme)’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 복제되어 개체군 내에서 확산하듯이,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일례로, 요크셔 지역에서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리법은 누군가가 푸딩 만드는 것을 지켜본 후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기보다는 요크셔 푸딩 요리법에 대한 부모와 친척,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한 결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니는 동시에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 준 정보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다 자신의 생각을 더해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 ①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는 수용 주체의 주관의 개입이 개입하지 않는다.
- ③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 ④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3~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글쓴이는 생명체와 달리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 문화의 특성상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이 문화의 전파 기제를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즉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밈 이론과 달리 의사소통 이론은 문화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덧붙여질 수 있다고 보므로 전파된 문화가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문화 수용 과정 중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수용 주체의 주관(생각)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③ 복제를 통해 문화가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의사소통 이론이 아니라 밈 이론이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이 지방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밈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